배 위에 벌떼 얹어놓고 기념 촬영한 임산부

한 임산부가 벌떼를 배 위에 얹어놓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사는 베서니 카룰락 베이커는 최근 남편과 특별한 화보 촬영에 나섰다. 오는 20일 출산 예정인 그녀는 놀랍게도 배 위에 벌떼 1만 마리를 얹어놓고 촬영에 임했다. 벌침 알레르기가 있었지만 양봉 사업가로서 벌을 잘 다룰 자신이 있었기에 큰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만삭의 임산부 배 위에 떼 지어 앉아있는 벌떼를 본 사람들 반응은 충격과 공포, 혼란 그 자체였다.

▲ 만삭의 배 위에 벌떼를 올려놓고 기념 촬영한 베이커 부부. 사진=베서니 카룰락 베이커 페이스북

베이커는 논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녀는 "내가 1년 내내 직접 벌집을 관찰하는 양봉업자이자 벌 애호가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 라면서 "수천 번 벌에 쏘이며 벌을 다루는 법을 터득했다. 괜한 걱정 하지 마라!" 고 일침을 가했다. 또 "주치의 승인도 받았다. 촬영 내내 단 한 번도 벌에 쏘이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촬영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1년 전 유산을 겪고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몇 달 후 다시 임신에 성공했지만 또 유산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유산되지 않았다. 베이커는 자신이 아끼는 벌떼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다. 그녀는 "벌떼와 함께 찍은 사진은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곧 태어날 아기가 이 사진을 보고 내 안에서 용기를 발견하는 것" 이라며 "아기는 내 삶의 전부다. 제발 나나 내 아기 걱정은 그만하라!" 고 말했다.

베이커처럼 벌떼와 함께 만삭 화보를 촬영한 이는 또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양봉가 에밀리 뮐러도 2017년 넷째를 임신했을 때 2만여 마리의 꿀벌을 배에 얹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촬영 도중 벌 3마리에게 쏘였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시 뮐러는 "사람들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꿀벌은 내게 매우 익숙한 존재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면서 "사랑하는 태아, 그리고 꿀벌과 함께 매우 가치 있는 사진을 남기게 됐다." 고 기뻐했다.

코로나19 의심 격리 중 성폭행 당한 2세 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이를 상대로 한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북동부 가우텡주에 있는 한 병원으로, 피해 아동은 지난달 15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이 병원의 격리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병원 측은 환자의 나이가 어린 만큼, 환자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격리병동 밖에 항시 머물며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2세 여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격리 중 성폭행을 당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shutterstock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저녁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심하게 울고 보채기 시작했다. 간호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때문이라고 여기며 아이를 달랬다.

아이는 다음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아이의 걷는 모습에서 평상시와 다름을 느꼈고, 아이의 기저귀에서 체액 흔적을 발견하고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측은 아이의 상태를 진단한 뒤 성폭행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지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찾고 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폭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가이다.

홀로 6,400km 항해한 남자의 사연

▲ 딸 결혼식 참석을 위해 37일 동안 6,400km를 항해한 크로스터(오른쪽에서 2번째). 사진=서울신문

한 팔을 잃은 노년의 한 남자가 혼자서 요트를 타고 무려 6400㎞를 항해해 고향에 도착한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영국 BB는 카리브 해 북동쪽 섬인 세인트마틴에서 출발해 37일 만에 고향인 북아일랜드 런던데리에 도착한 게리 크로더스의 사연을 보도했다.

올해 나이 64세의 크로더스는 지난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2년 전 한 팔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항해 기회를 주는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가 카리브해에 발이 묶인 것은 코로나19 때문이었다. 당초 그는 이곳에 요트를 정박해놓고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고 다시 고향인 아일랜드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비행편이 끊기고 허리케인 시즌까지 찾아오면서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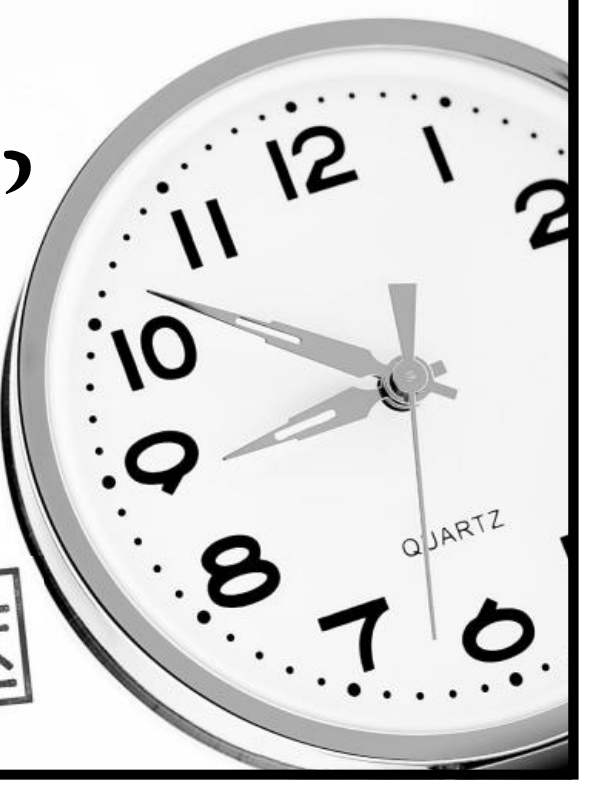
그는 오는 9월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큰 결단을 내렸다. 크로더스는 "계속 이곳에 있다가는 딸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았다." 면서 "직접 배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 말했다.

이에 크로더스는 충분한 식량을 비축하고 홀로 머나먼 고향을 향한 대서양 횡단 항해에 나섰다. 크로더스는 "항해 경험이 많은 편이지만 가장 길었던 단독 항해는 단 7일이었다." 면서 "한달이 넘는 긴 시간을 혼자서 보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크로더스는 출발한 지 37일 만인 지난 4일 오후 목적지인 런던데리에 무사히 도착했다. 항구에는 아내와 결혼식을 앞둔 딸이 마중 나와 그의 도전 성공을 축하했다.

타운뉴스 업소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Fax: _____

업소명(한글) :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타운 뉴스